ECONOMY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전남도-CJ제일제당, 새청무 쌀로 만든 햇반 출시

농협유통-보성·강진통합RPC와 업무협약
원료곡 공급부터 소비 활성화까지 협력체계

전남도와 CJ제일제당, 농협유통, 보성·강진통합RPC는 18일 전남도청에서 새청무 쌀 활용 햇반 출시를 통해 안정적 원료곡 공급부터 소비 활성화까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린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 이찬호 농협유통 전무이사, 문병완 보성통합RPC 조합장과 진성국 강진통합RPC 조합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남에서 육성해 찰기와 윤기가 좋고 밥맛이 우수한 '새청무 쌀'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즉석밥을 제공하도록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 내용은 △즉석밥 기술력을 활용한 제품 설계·생산 △새청무 쌀의 안정적 공급 지원(연 1만t) △새청무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과 홍보 등 소비 활성화 노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는 새청무 쌀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기회를 가졌으며, 소비 촉진을 위해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CJ제일제당, 농협유통, 보성·강진통합RPC에선 새청무 쌀 1만t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4000만개의 즉석밥을 출시, 홍보 마케팅과 판로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CJ제일제당, 농협유통, 보성·강진통합RPC와 '새청무 쌀 활용 햇반 출시'를 통한 안정적 원료곡 공급부터 소비 활성화까지 함께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박린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는 "즉석밥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새청무의 뛰어난 품질을 햇반의 기술력과 결합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CJ제일제당의 홍보·마케팅과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햇반을 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2003년부터 전남쌀 품질 향상을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한다. 그중 새청무쌀이 대다수"라며 "지역 여건에 맞춰 7년간 육성한 밥맛 좋은 새청무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전남쌀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햇반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추천하는 등 제품 홍보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CJ제일제당은 집중호우로 어려운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지난 3~4일 수해 피해를 입은 함평, 무안 지역에 햇반 200박스(4800개)를 전달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오비맥주, 무알코올 맥주 '카스 올 제로' 330㎖ 캔 출시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18일 무알코올 맥주 '카스 올 제로'를 출시했다.

카스 올 제로는 국내 최초로 알코올·당류·칼로리·글루텐 제로의 '4무(無)'를 내세운다.

카스만의 제조 노하우를 통해 라거 맥주 특유의 청량감과 시원하게 톡 쏘는 탄산감을 구현했다. 알코올 0.00%, 당류 0g, 칼로리 0㎉, 글루텐 0g으로 주중 점심 회식이나 운동 전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 등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330㎖ 캔으로 선보이는 이 신제품은 11번가와 G마켓에서 먼저 판매하고 쿠팡, B마트, 컬리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무알코올 음료지만 '성인용 음료'로 분류돼 구매할 때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알코올·당·칼로리·글루텐을 모두 뺀 동시에 카스 특유의 청량감은 살린 카스 올 제로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과 트렌드에 발맞춘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카스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시장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1771만원'

전월보다 소폭 상승…전남은 두달째 보합

지난달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과 견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두 달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7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평균 분양가격은 ㎡당 536만9000원으로 전월(527만8000원)과 비교해 9만1000원 상승했다.

반면 1년 전(552만2000원)과 비교해서는 15만3000원 떨어졌다.

3.3㎡ 당 평균 분양가는 1771만7700원이다.

지난달 전남의 ㎡ 당 평균 분양가는 38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보합세다. 3.3㎡로 환산하면 1262만9100원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아이와 북캉스 즐기세요" ㈜광주신세계가 가족단위 고객들을 겨냥, 아이들이 직접 책을 골라보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8일 본관 6층에 '아람북스' 매장을 리뉴얼 오픈하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책을 선보이고 있다. 아람북스는 영유아 성장과 발달에 맞는 그림책을 제안하는 유·아동 전집 전문 출판사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수출 반등…지난달 무역흑자 14억6800만 달러

작년보다 159.4% 급증

수출 반등에 힘입어 지난 7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14억6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51억7000만 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37억2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14억68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5억6600만 달러) 대비 159.4% 급증했다.

7월 말 누계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338억3500만 달러, 수입은 9.3% 감소한 258억65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9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88억3300만 달러 대비 9.8% 감소한 수치다.

광주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한 16억1000만 달러, 수입은 15.9% 증가한 6억9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1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8.0%), 반도체(77.2%), 기계류(7.1%)가 증가했고 가전제품(-42.4%), 타이어(-43.8%)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3.3%), 기계류(24.6%), 가전제품(29.6%)이 증가한 반면 고무(-40.1%), 화공품(-24.9%)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35억6000만 달러, 수입은 14.7% 감소한 30억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철강제품(4.5%), 수송장비(3952.5%), 기계류(45.0%)가 증가했고 석유제품(-2.9%), 화공품(-3.2%)은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18.1%), 철광(-30.7%), 석유제품(-27.1%), 석탄(-12.3%), 화공품(-8.4%)이 모두 감소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수공예품 향연'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22~24일 DJ센터…공예체험 등 부대행사 다채

호남 최대 공예품 박람회인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전국 각지 200여개 공예공방과 협동조합, 대학 내 관련 학과가 참여한다. 섬유공예, 한지, 도자, 금속, 목공예품 등 전통공예는 물론 생활자기와 천연비누, 염색, 가죽잡화 등 다양한 생활공예 상품들이 어우러져 선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우수공예브랜드 홍보관, 스타공예상품 전시관, 지역대학관, 공예 체험 및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특별전시관으로 꾸며질 공예명품관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팝업전시관은 광주와 전주지역의 우수한 전통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를 통해 지역 수공예공방들이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호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사례 공모전 '성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18일 라마다프라자 바이윈덤 충장 대연회장에서 '2025년 호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GICON이 주관한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된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의 참여자·수료생 중 우수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발하고 시상,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동기 부여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 8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또 수상자들의 우수성과 발표가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